

축산업계

소식

1만수 이상 중추업 등록제

—축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농림수산부는 지난 19일 축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골자는 산란계용 중병아리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양계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추가시켰으며,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계열기업군으로 정하였다. 또한 양돈업의 허가상한선을 모든 1천수로 개정하였다.

산란계용 중병아리(산란계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령 이하의 병아리)를 1만수 이상 사육하는 중추업이 양계업 등록규모인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중추업의 건전한 육성 및 수급조절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90년 종계수입계획 확정

—육용종계 20만수, 산란종계 15만수 배정—

농림수산부는 90년 종계수입추천 한도량을 확정하였다.

이번 수입추천배정 내역은 원종계는 연간 수입계획한도량인 15만수 범위에서 수입계획량을 감안하여 수입추천신청에 따라 산란계 1만수, 육용계 14만수를 수입계획을 하고 있고, 종계는 업체별 종계보유수, 업체별 수입희망량 및 전년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산란계 15만수, 육용계 20만수를 각업체별로 배정하여 수입추천하였다.

각업체별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종계(P.S)업체별 배정량

(단위: 수)

시도별	업체명	산란계	육용계	계
대 구	신 기		7,000	7,000
	성 진	9,000	-	9,000
경 기	신 기	-	6,000	6,000
	마니육종	-	20,000	20,000
	한일농원	46,000	39,000	85,000
	양 지	11,000	5,000	16,000
	마 전	16,000	-	16,000
	동 신	-	8,000	8,000
	삼 미	-	2,000	2,000
	창 우	-	5,000	5,000
	순 종	-	2,000	2,000
충 북	죽 전	-	9,000	9,000
	한 독	-	4,000	4,000
충 남	복 지	17,000	22,000	39,000
	청 곡	-	2,000	2,000
	한 협	12,000	6,000	18,000
	신 기	5,000	5,000	10,000
	삼 화	10,000	7,000	17,000
	중 원	-	22,000	22,000
	천 궁	-	18,000	18,000
	서 립	-	2,000	2,000
	하 립	-	7,000	7,000
전 북	고창양계	20,000	-	20,000
	동 산	-	2,000	2,000
경 북	봉 산	4,000	-	4,000
계	25개소	150,000	200,000	350,000

뉴캐슬병 전국적으로 발병 심각

—질병예찰협의회, 뉴캐슬병 발령주의보 발령 예정—

제79차 가축질병중앙예찰협의회가 1월30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과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보고에 이어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 소비현황과 위생시험소, 농촌지도소의 가축질병예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특히 89년도 ND 예방약 소비는 88년도 1억4천5백여만수분에 비해 193%에 달하는 2억8천수분 가까이 소비되었으나 최근들어 ND 발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협의를 거쳐 2월초 뉴캐슬병 발령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

ND는 닭뿐만 아니라 최근 사육수수가 늘고있는 메추리, 꿩 등에서도 발병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야외에서 청취된 바에 의하면 메추리가 30% 꿩이 50% 정도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신규참여 육계농장에서 뉴캐슬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1989년도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ND 65건에 29만3천80수가 발생되었고, ILT 8건에 9천8백 60수, AE 4건에 6천1백수가 발생되었다.

낙농육우산업 위기극복 세미나 예정

—2월16일 전경련회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감 고조와 낙농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책방안 마련의 계기를 삼고자 “낙농육우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오는 2월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축가들의 현실을 직접 들은 후 서울대학교 정영일 교수의 “선진국 낙농육우산업

정책방안”, 충북대학교 권원달 교수의 “수입개방압력 대처방안”, 농림수산부의 “낙농육우산업 정책방향”, 4당 정책의장으로부터 “4당의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을 듣는다”, 농협대학 서기원 교수의 “낙농육우인의 단합을 통한 위기극복”이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양축자금 비조합원에게도 지원

—1인당 지원한도 400만원—

정부는 축산업협동조합원에게만 지원하던 양축자금을 영세양축가의 경영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축협자금 범위에서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지원하던 양축자금을 올해부터는 정부정책자금과 축산진흥기금 등 정부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지원하고, 그 규모를 1천1백억원에서 1천7백억원으로 늘려 1인당 지원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1년내에 상환해야 한다.

양돈업 모돈 허가상한선 1,000두로

—대기업 축산업 참여 금지—

농림수산부는 양돈업 모돈허가상한선을 1천두 이하로 하고 양돈업 등록은 모돈 50두에서 100두로 상향조정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모돈 1천두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업체는 사육모돈을 수출이나 계열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91년3월까지 감축토록 해야한다. 특히 대기업 47개 그룹 908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자본의 축산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 참여를 방지하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등록 또는 허가받은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없도록했다.